

동유럽에 보내진 北 전쟁고아 5천명… 매일 ‘김일성 노래’ 불렀다

비극적 운명 다큐 ‘김일성의 아이들’
동유럽 강제이주 北 전쟁고아 ‘추적’
로마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쾌거’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 은밀하게 진행한 ‘전쟁고아 위탁교육 프로젝트’를 폭로한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Kim il Sung’s Children)’이 ‘로마국제무비어워즈(Rome International Movie Awards)’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 작품상(Best Documentary Feature)을 수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매달 온라인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로마국제무비어워즈’는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영화 ‘포이닉스 - 디아스포라의 이야기(Phoenix - A Story from the Diaspora)’와 함께 김덕영(56) 감독이 연출한 ‘김일성의 아이들’을 7월의 장편 다큐멘터리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김 감독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로마국제무비어워즈’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고 영예인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 장편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금까지 함께 맘과 눈물로 같이 해줬던 아내이자 제작자였던 임수영 프로듀서에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저희 영화를 응원해주셨던 서포터스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 감독은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제작 초기 제작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작품을 포기하려 할 때 아내가 ‘이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다큐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완성시키자’고 격려해 힘을 냈다”는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작품에서 프로듀서와 촬영 감독으로 활약한 임

수영 씨는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으로 현재 출판사 다큐스토리 대표를 맡고 있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1950년대 위탁 교육 명목으로 동유럽에 보내진 5000여명의 북한 전쟁고아들의 드라마틱한 사연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번 ‘로마국제무비어워즈’를 포함해 ‘뉴욕국제영화제(International New York Film Festival)’, ‘니스국제영화제(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등 12개국제 영화제 본선에 진출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전쟁고아들이 동유럽에서 집단 위탁교육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연은 2년 전 추상희 감독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로 한번 다룬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동유럽 5개국(루마니아·폴란드·체코·헝가리·불가리아)에 보내진 아이들이 김일성의 ‘우상화 도구’로 키워졌다는 사실을 생존자들의 증언 등으로 폭로한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

사료에 따르면 6.25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에서 약 10만명에 달하는 전쟁고아가 생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한에선 ‘해외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고아들의 양육을 타국에 위탁했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5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동유럽 5개국에 분산 수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김 감독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미국과 냉전 중이었던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은 체제와 휴머니즘, 이데올로기 등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위성 국가인 동유럽 여러 나라에 전쟁고아를 위한 학교를 세웠다.

이에 북한에도 6.25전쟁으로 생겨난 고아들을 동유럽 국가에 맡길 것을 요구해 5000명에서 최대 1만명에 달하는 북한 전쟁고아들이 10년 가까이 현지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때 북한은 기술과 문화 측면에서 앞선 동구권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 나중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러한 집단 이주 계획에 동의했다는 게 김 감독의 주장이다.

그런데 1956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민주화 봉기가 일어나고 이 같은 봉기에 북한 전쟁고아들이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이들 대부분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동유럽의 선진 문화를 체득한 전쟁고아들을 체제 강화 및 선전 도구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김일성은 오히려 이들이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송환을 강행했고, 사상 검열을 이유로 이들 중 다수를 탄광이나 공장, 교화소(교도소) 등에 보내는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1950년대 북한 전쟁고아들을 직접 가르쳤던 현지 교사와 친구들을 인터뷰해 이들이 철저히 김일성 우상화와 체제 선전 도구로 양육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김 감독이 루마니아 기록보관소에서 찾아낸 4분 30초짜리 필름에는 전쟁고아들이 매일 아침 6시30분에 일어나 김일성의 얼굴이 새겨진 인공기에 경례를 하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아들과 함께 생활했던 동창생들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당시 전쟁고아들에 대한 북한의 사상 교육과 규율이 엄격했다는 게 김 감독의 주장이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이달 말까지 명보아트홀에서 매일 오후 6시 30분에 상영된다.

조광형 기자 theseman@naver.com



김덕영 감독. 사진=뉴데일리DB

주체적 여성으로 돌아온다… 창작오페라 ‘춘향 2020’

이몽룡을 기다리지만 않는 춘향
‘내 미래는 내가’ 화두 던져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오페라 ‘춘향전’이 새롭게 돌아온다.

예술의전당은 대한민국 창작오페라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 ‘춘향 2020’을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유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춘향 2020’은 작곡가 나실인, 극작가 윤미현, 연출 윤태웅, 의상 디자이너 김리를 등 젊고 유능한 창작진들이 의기투합했다. 재치있고 감칠맛 나는 우리말 가사, 달콤하고 중독성 있는 선율로 창작오페라의 새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작품에서 춘향은 옥에서 몽룡이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지 않고

직접 몽룡을 찾아 나서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춘향은 과거의 관습과 고정관념을 철저히 거부하며, 이 시대의 관객들에게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만들어 가야한다는 화두를 던진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탈옥도 마다않는 당당한 ‘춘향’役に 소프라노 박하나, 자칭 사랑꾼 ‘변사또’는 바리톤 공병우, 과거에 낙방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몽룡’ 역은 테너 서필이 출연한다

옥에 갇혀서도 사랑이 제일이라 외치는 철없고 귀여운 ‘월매’役に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춘향 못지않은 신여성 의 모습을 보여주는 ‘향단’은 윤성희, 촌철살인 대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방자’ 역은 윤한성이 맡는다.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위로와 희



예술의전당은 창작오페라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 ‘춘향 2020’을 선보인다.

망을 주고 유쾌한 감동을 선사할 작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의전당은 안전한 관람을 위해 공연장 로비 출입 시 안면인식 체온계

로 방문객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및 제출,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성아 기자 mystery37@hanmail.net

창작 뮤지컬에 ‘숨통’

충무아트센터 ‘춘수창작품’ 지원

충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사장 윤진호)가 중·소극장급 레퍼토리 발굴에 적극 나선다.

충무아트센터는 창작뮤지컬 경연을 거쳐 선정 작품을 지원하는 ‘블랙창작 뮤지컬어워드 2020’을 10월 24일 개최하며, 오는 17일부터 28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지원자격은 완성된 대본과 음악을 갖추고 무대화를 계획하고 있는 순수 창작품이다.

유료공연 20회 미만의 쇼케이스 및 시범공연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을 준비하며 개인이나 단체다. 일반(경쟁) 분야와 대학생(비경쟁)분야로 나뉜다

최종 어워드에서 각각 3개, 1개 작품의 공연이 선발돼 10월 24일 리딩공연으로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리딩공연 준비를 위한 작품개발비로 일반분야 1000만원, 대학생 분야 300만원이 지원되며 리딩공연과 관련된 프로덕션 비용은 모두 충무아트센터에서 지원한다.

당일 심사위원과 관객의 심사를 통해 우승작을 가리며 우승작은 2021년 3월 4주간의 대관지원과 함께 제작비로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청서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아 기자 mystery37@hanmail.net

코로나가 시장을 바꾼다

이준영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300쪽 18,000원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상의 모습이 바뀌고, 개인의 소비 패턴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10년간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공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준영 교수가 팬데믹 이후 소비트렌드를 7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개인의 소비 변화 키워드로 ‘홀코노미’, ‘엔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멘탈데믹’,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인 소비 변화 키워드로 ‘로컬리즘’, ‘코로나 디바이드’, ‘코로나 패러독스’, ‘코로나 리세션’을 정리해 개인과 사회가 새롭게 맞이할 소비 변화 전반을 조망한다.

보험, 금융을 디자인하다

류근욱 지음
교보문고 펴냄
288쪽 16,000원

기술 혁신, 생명과학 발전, 새로운 질병의 발생 등 불확실성이 계속 증폭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역할을 재조명했다. 저자는 금융과 보험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주요 영역으로서 경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해왔지만 한국에선 여러 가지 오해 속에서 저평가돼 왔음을 지적하며 보험에 대한 이미지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가계 금융자산 중 왜 은행 예금 비중이 감소하고 보험 비중은 증가하는지를 보험의 본질과 속성을 통해 설명한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 시대엔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 등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작지만 큰 기술, 일본 소부장의 비밀

정혁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256쪽 16,000원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은 왜 강할까? 코트라(KOTRA) 최고 일본 전문가로 평가받는 저자가 이에 대한 대담을 내놨다. 일본 지역 무역관에서 17년을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일본 소부장 경쟁력의 비결을 분석했다. 저자는 도레이, 시마노, 닛토덴코 등 일본을 넘어 세계 경제의 기반이 되는 12개 소부장 기업의 성장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책이 주목하는 일본의 경쟁력은 장인을 존중하는 문화다. 그들의 발달 과정은 현재 더 큰 도약을 앞둔 우리 소부장 기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비투스

도리스 메르틴 지음
다산초당 펴냄
368쪽 18,000원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7가지 자본으로 ‘원하는 모습의 나’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 인문서다. 저자 도리스 메르틴은 독일 최고의 컨설턴트 중 한 명이다. 저자는 “20년간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부, 성공, 건강, 인맥, 지식 등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며 사는 엘리트들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비밀은 바로 최상층의 ‘아비투스(habitus)’를 갖는 것이다. ‘아비투스’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이다. 저자는 “아비투스는 결코 돌에 새겨지지 않았다”라고 단언한다.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레이전 일레븐

폴 캔고르 지음
열아홉 펴냄
280쪽 16,000원

지금의 한국 보수에 꼭 필요한 가치관 회복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미국의 보수주의도 과거 1940~50년대에, 지금의 한국 보수만큼 좌절하여 무릎 꿇린 경험이었다. 그때 미국은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200년 전 미국의 독립정신과 건국이념을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회복해 우뚝 세워냈다.

현대 미국 보수주의 운동사를 잘 공부하면 한국 보수주의 회복의 로드맵이 그려진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레이전이 말한, 그리고 한국 정치가 잃었던 ‘원칙 있는 정치’와 ‘정치적 원칙’이 바로잡힐 것이다.

남극이 부른다

박승현 지음
동아시아 펴냄
372쪽 17,500원

“우주에는 몇 분이면 도착하는데, 남극 기지에 오려면 며칠이나 걸리는군요. 여기가 우주보다도 더 멀어요.” 일본의 우주비행사 모리 마모루가 자국의 남극 기지를 방문하면서 남긴 말이다. 지난 25년 동안 25차례 배를 타고 남극권의 심해를 조사한 저자가 반평생의 탐사와 연구를 돌아봤다. 대학 졸업 후 첫 탐사길에 오를 당시부터 남극권 최초의 열수 분출구·열수 생태계의 신종 생물·빙하가-간빙기 순환 증거 등 수많은 성과를 이뤄내기까지를 담았다. 한 편의 소설 같은 경험으로 저자는 해양 탐사는 단순한 과학 연구를 넘어선 문화와의 교류라고 말한다.